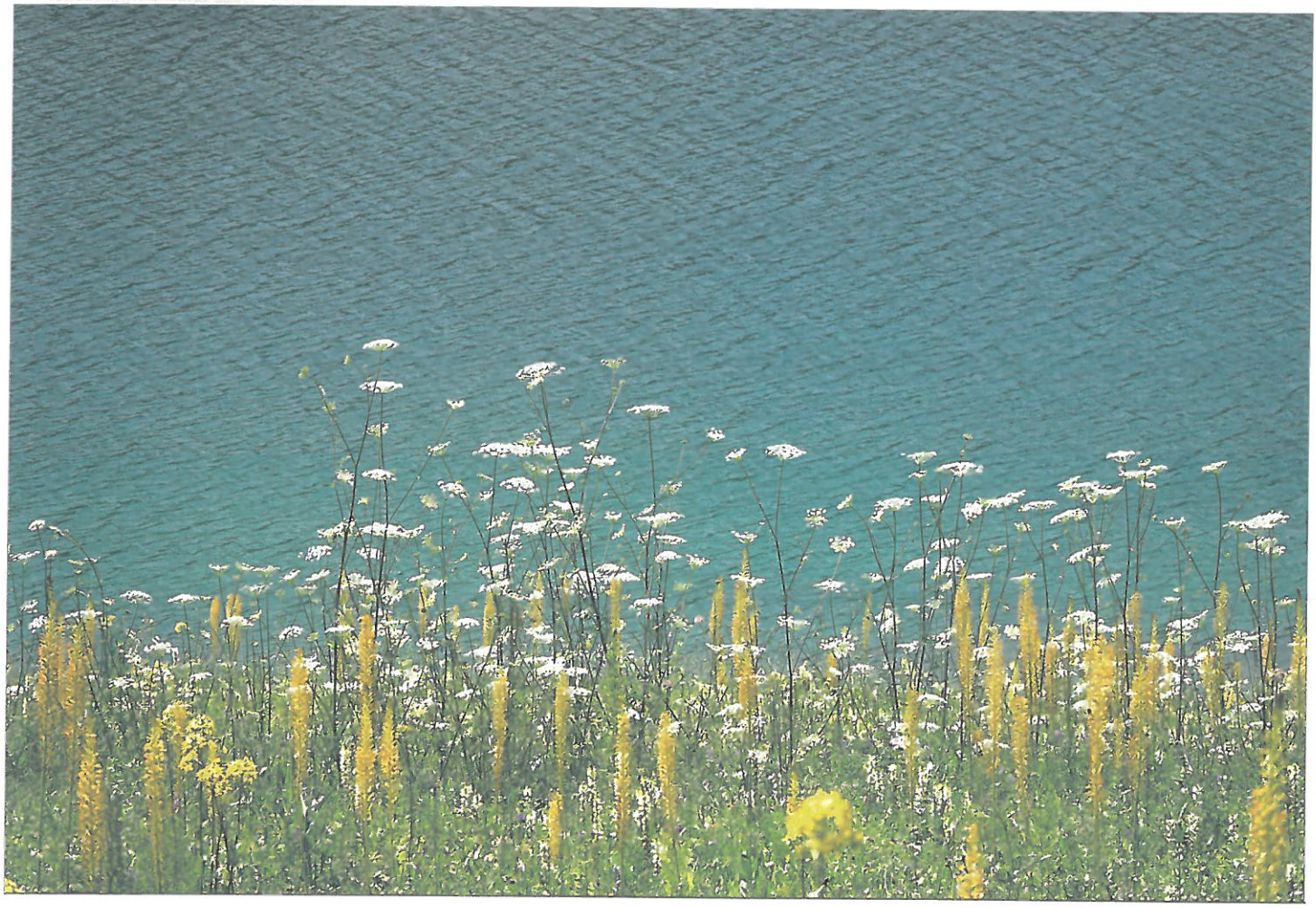
서울주보

제2401호 2022년 7월 3일(다해)
연중 제14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 당 송 | 시편 48(47),10-11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 이사 66,10-14ㄷ

화 답 송 | 시편 66(65),1-3ㄱㄴ.4-5.6-7ㄱ.16과 20(◎ 1)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 갈라 6,14-18

복음환호송 | 콜로 3,15.16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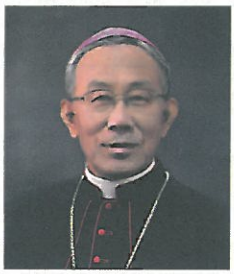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 루카 10,1-12.17-20<또는 10,1-9>

영성체송 | 시편 34(33),9 참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olleh tv 231번 / Btv 307번 / U+tv 274번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구요비 욥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루카 10,2)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선교(missio)의 본래적인 의미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또한 '열심한 신자들'에게서 전교(傳敎)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교의(dogma) 아래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개종(改宗)시켜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개선주의적 교회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선교의 주도권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본질적 내용인 복음 선포(κήρυγμα) 안에는 이미 하느님의 구원 위업이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모든 인간의 마음과 온 세상 안에 약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통하여 이룩하신 이 구원을 모든 인간에게 무상의 선물로 나누어 줄 당신의 일꾼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요한 4,35-38)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도로서 실존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견되었다.'는 신원 의식입니다.

사도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대리자(in persona Christi)라고 하겠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는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성제 안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모든 성사 거행을 보이지 않게 주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교나 사제는 그분을 대신하여 모임을 주재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348항)

제가 잘 아는 방송작가님을 통하여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관람할 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아마도 탤런트 같은 배우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기자들은 작가가 쓴 희곡 대본을 잘 이해하고 소화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몸과 전 존재 안에서 온전히 체현(體現)할 때 훌륭한 주인공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작가의 높고 고상한 이데아와 배우의 연기가 하나가 될 때 불후의 명작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나'를 담고 드러내는 것이 인격(persona)인데 신약성서의 언어인 희랍어는 이를 휘포스타시스(ὑπόστασις)로 쓰며 그 뜻은 연극배우가 쓰는 가면(假面)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은 하느님의 광대무변한 사랑과 구세경륜이 우리를 재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오늘 제1독서에서 잘 보듯이 하느님의 사랑은 갓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돌보시는 어머니의 심정과 같기에 말입니다!(이사 66,11)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이사 66,14)

사진 설명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생물 보존 구역에서는 모든 것이 스스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호수 옆 야생화들이 어쩜 그리 조화롭게 꽃을 피웠던지요. 주님께서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우리 또한 뼈 마디마디마다 새 풀처럼 싱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말씀의 이삭

명동밥집 시노달리타스가 이루어지는 곳

임순연 스텔라 수녀 | 명동밥집 봉사자

매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아침이면 명동성당 내 옛 계성여중·고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료 급식소 바닥에 매트를 깔고 대형 텐트를 움직여 식당을 만듭니다. 의자와 테이블을 차리고, 가림막을 말아 올려 창문을 만들고, 입구를 만들어 여름에는 선풍기, 겨울에는 온풍기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저는 사랑의 씨튼 수녀회 소속으로 평소 여성 노숙인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게 다른 소임이 있어서 노숙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를 찾다가 주보를 보고 명동밥집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 첫 도시락을 나눌 때는 땅이 꽁꽁 얼어 엄청 추웠습니다. 코로나19로 조심스러웠지만, 다른 무료 급식소들이 코로나로 폐쇄된 상황이라 더는 미룰 수 없어 도시락부터 나눠 드렸습니다. 이후 5월 5일부터 현장에서 직접 급식을 준비했는데, 무척 더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뻤습니다. 도시락보다는 따뜻한 밥을, 업체에서 주문한 음식보다는 직접 만든 국과 반찬을 드렸기에 드리는 저희도, 받는 분들도 흐뭇했습니다.

저에게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노달리타스-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명동밥집'입니다. 시노드의 주제인 친교, 참여, 사명을 더 깊이 체험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며 교회의 각 지체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곳. 이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평신도의 헌신적인 참여입니다. 의정부, 인천을 비롯한 곳곳에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기쁘게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시는 평신도 형제자매님들을 보며 감탄하곤 합니다. 봉사자 중에는 개신교 신자들도 계십니다. 또한, 노숙자분들께 존칭어를 사용하시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시며 끝까지 남아 바닥 청소를 하시는 신부님들의 모습도 수도자인 저 자신을 재촉하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실천하는 모습들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느끼는 '일치'는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에서만 가능한 친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 빈첸시오께서 '가난한 이들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명동밥집에서 만나는 노숙인들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갈 길잡이라고 여깁니다. 때로는 엄청 많은 식사량에 걱정도 되고, 두 번씩 오셔서 난감한 생각도 들지만, 여기서 드시는 식사가 하루 음식의 전부인 분들도 많으시다는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이어져 온 명동밥집에서 시노달리타스의 현장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명동밥집이 필요 없는 때가 오기를 희망하면서 저희가 누리는 평화를 나누기 위해 여러분들을 명동밥집으로 초대합니다.

한컷 묵상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24

연옥 영혼이 살아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1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천주교 신자 중 '식사 전 기도' 외우는 사람은 드물지 않지만, '식사 후 기도'까지 외우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식후 기도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살아 있는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연옥 영혼들이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교회는 한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연옥 혹은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천국 가기 애매하고, 지옥에 갈만하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일종의 중간상태인 연옥에 간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개신교에서 연옥이 없다고 하는 신학적 근거는 인간의 죽음과 관련됩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인간은 하느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후 당신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창조된 존재라 합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단일한 존재이고, 살아있을 때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이기에, 죽음 후에 영과 육은 함께 소멸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죽음 후 영혼만 남지 않고, 죽는 순간 부활하거나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연옥이란 있을 수 없고, 가톨릭교회가 지어낸 이야기라 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단일체이고,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가톨릭교회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육(신)보다 더 근본적인 본질이고, 육신처럼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불멸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하느님께서 불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느님과 함께한다면 불멸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천국은 물론 연옥의 존재도 가능합니다.

'연옥'이란 단어가 처음 교회에 사용된 것은 12세기 전후이지만,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은 모두에게 구원될 가능성을 주셨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신앙을 원하십니다. 살아서는 물론 죽은 다음에도 회개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정화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느님 은총과 사랑을 알지만, 아직 온전히 정화되지 못 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정화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연옥에 대해 성경은 직접적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지만, 사도 바오로도 성경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 주겠습니다."(1코린 11,34) 하느님의 가르침, 즉 계시는 성경과 성전(聖傳 Traditio)을 통해, 사도들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주어진다고 가톨릭교회는 가르칩니다. 연옥이란 '정화소'(淨化所, Purgatorium)입니다. 연옥의 불은 벌을 주는 지옥의 불과 다른 것인데, 깨끗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하느님 사랑의 불입니다. 정화시키는 하느님 사랑의 불을 통해 정화되고 순수해져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다룬 연옥을 근거로 다음 주에는 연옥 영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치료비 지원사업

찬혁 씨의 새로운 꿈을 응원해주세요

후원 후기

185cm의 건장한 체격과 구릿빛 피부의 찬혁(남, 27세, 가명) 씨는 육군 장교였습니다. 누가 봐도 군인이 잘 어울렸던 찬혁 씨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건 2021년 1월이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던 찬혁 씨는 동료들과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부딪친 후 왼쪽 무릎 아래쪽으로 혹 같이 보이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방종 같은 간단한 질환일 거라 가볍게 생각하며 방문한 병원에서는 예상과 달리 연부조직육종이라는 생소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혹은 근육, 지방, 섬유조직과 이에 포함되는 혈관을 만드는 조직과 신경에 발생하는 암이었습니다.

찬혁 씨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젊고 건강했기에 크게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 후 암세포가 폐까지 퍼졌다는 결과에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치료를 꾸준히 잘 받으면 일이 년 안에 완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찬혁 씨는 어렵게 이룬 본인의 꿈인 군인이라는 직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초기 항암 치료 중에는 군 생활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가 순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수술과 항암 치료에도 종양은 계속 커져만 갔고, 결국 찬혁 씨는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군 생활을 포기하고,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찬혁 씨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몸이 힘든 것은 어떻게든 군인 정신으로 악착같이 버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 1회 치료비가 450만 원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찬혁 씨에게 고액의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찬혁 씨의 부모님은 모두 연로하신데다,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어머님의 월급으로는 항암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는커녕 두 분의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삶은 언제나 비극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며 찬혁 씨는 힘주어 말합니다. 아프고 난 뒤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어서 "작은 것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가슴 벅찬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잘 받아 완치되면 제빵사가 되어 의미 있는 삶을 이어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빵사가 되어 건강에 좋은 빵을 만들어 본인처럼 암 치료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는 찬혁 씨의 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찬혁 씨의 항암 치료는 이제 14회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항암제가 다행히 찬혁 씨에게 효과가 있어, 치료를 잘 받는다면 머지않아 찬혁 씨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씩씩한 찬혁 씨가 새로운 꿈을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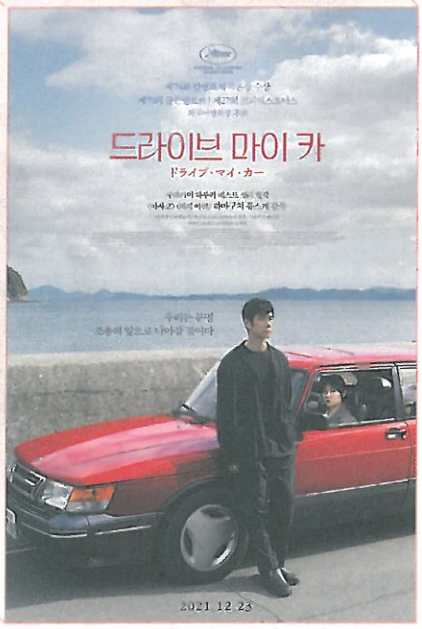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찬혁 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총 지원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인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합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2년 7월 2일~8월 5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찬혁'(가명)**님을 위해 쓰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http://obos.or.kr)-한마음한몸소식-본부소식'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_ ① **인터넷 신청:** www.obos.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74-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1년 감독,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칼럼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

삶은 '연기(演技)'가 아닙니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연기(演技)는 배우만 할까요. 배우가 아니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부러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인 연기를 하면서 삽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삶에서 배우로 변신하곤 합니다. 아우렐리우스도 〈명상록〉에서 "인생이 연극과 같다."고 했지만, 그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를 올린 자(하느님)의 각본에 의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연기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상처와 두려움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상대를 속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진짜 '나'는 아닙니다. "연기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기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왜 연기여야 하나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 자체가 더 낫지 않나요.

배우의 연기는 다릅니다. 잠시나마 무대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모습을 그럴듯하게 관객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직업이니까. 그런데 그가 무대에서처럼 삶에서도 연기를 한다면? 실제로 기자 시절 만났던 배우들에게서 종종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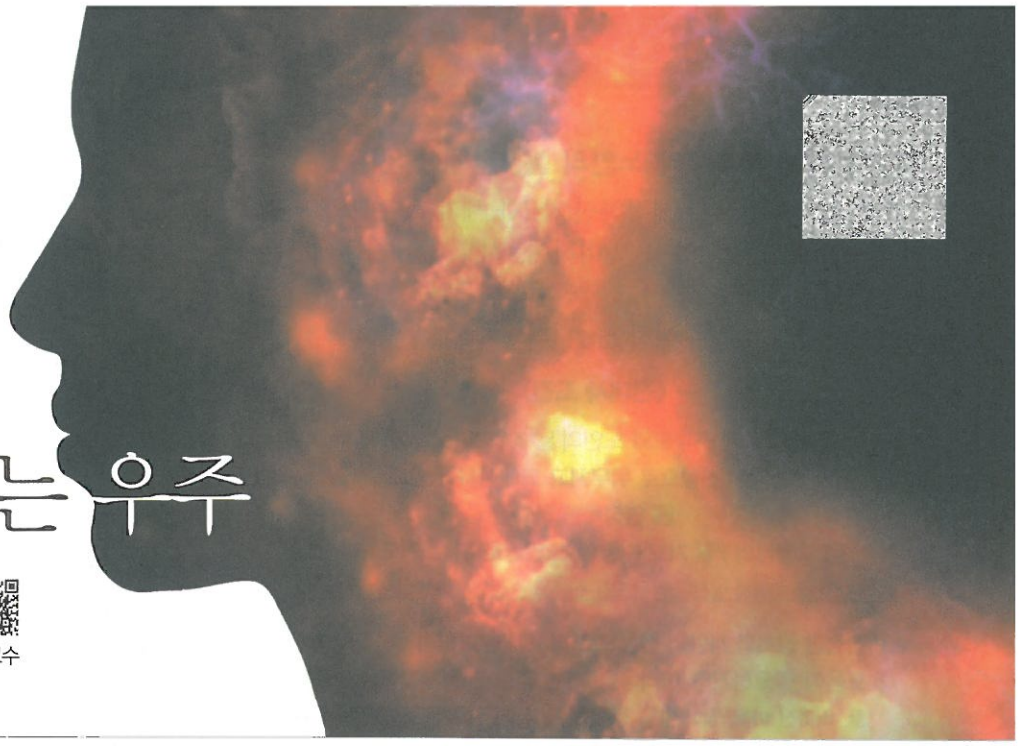
〈드라이브 마이 카〉(2022년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각본상 수상)의 주인공 가후쿠(니시지마 히데토기 분)도 그런 배우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면서도 이별이 두려워 모른 척,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마지막 외도 상대였던 젊은 배우와 함께 일하고, 아내와의 추억까지 이야기합니다. 둘의 관계를 모른 척, 연기를 합니다.

아내와 하게 될 이별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절망과 배신감, 분노와 질투심, 상처와 후회를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연기를 하고 나면 싫더라도 '하지 못한 질문과 듣지 못한 대답'을 품고 다시 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전과 조금 위치가 달라져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과 용서, 치유에서 조금씩 더 멀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런 그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배우들과 함께 소통의 벽을 넘어 안톤 체호프의 연극 〈바냐 아저씨〉를 준비하면서, 잠시 자신의 운전기사가 되어준 젊은 여성 미사키(미우라 토코 분)의 상처를 이해하고 쓰다듬으면서 삶에서 하던 연기를 그만둡니다. 연기로는 어떤 진실도 만날 수 없고, 자신을 깊숙이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를 모른 채 우리는 주님 앞에서까지 신앙을, 봉사를, 사랑을, 용서를, 기도를 연기하려 합니다. 누구도 "나는 아니오."라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연기가 가능하기나 할까요. 아무리 뛰어난 연기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안'까지 보시는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삶에서 하는 연기는 진실의 문을 잠가버리고, 신앙에서 연기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온갖 위선을 꾸짖을 때 말씀하셨듯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 버리는' 불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죽는 우주

김도현 바오로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하느님께서 빛과 물질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빅뱅! 빛과 물질이 생겨라!!" 하시자 빛과 물질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과 물질이 좋았다.

2022년 현재의 물리학적 관점에 따라 창세기 1장 1-4절을 살짝 수정하면 위의 문장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빅뱅 우주론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우리 우주의 기원과 현재까지의 팽창을 설명하는 물리 우주론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초기에 매우 높은 에너지로 응축된 작은 점이 대폭발(Big Bang)을 통해서 팽창하여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벨기에의 가톨릭 교구사제이자 루뱅 가톨릭대학교에서 활동하던 이론천문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Georges Lemaitre, 1894-1966)는 1927년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의 수학적 해(解)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우주는 반드시 팽창해야 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메트르 신부님은 빅뱅 이론의 창시자로 현재 모든 물리학 교과서에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장 방정식을 만든 장본인이면서 '우주는 영원불멸한 존재로서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개념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아인슈타인은 르메트르 신부님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927년 브뤼셀에서 열린 학회에서 팽창하는 우주를 이론적으로 주장한 르메트르 신부님의 발표를 들은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의 계산은 정확하지만, 당신의 물리는 터무니없군요!"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인 1929년부터 천문 관측을 통해 우주가 실제로 팽창하고 있다는 여러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빅뱅 우주론은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올바른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의 과학자들이 2001년에 우주에 쏘아 올린 관측 위성인 WMAP이 지구로 전송해 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물리학자들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팽창을 계속하다가 우주 전체의 밀도가 '0'이 되는 순간 혹은 우주의 절대 온도가 '0'이 되는 순간 우주는 종말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머나먼 미래에 우리 우주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138억년 전에 태어난 우리의 우주는 언젠가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유한한 수명을 갖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다른 생명체는 몰라도 우주만큼은 영원불멸할 줄 알았던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불멸한 존재는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전대사 안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정하신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2022년 7월 24일)을 맞이하여, 사도좌 내사원에서는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북돋우려는 목적에서 전대사를 수여하였습니다.

– 〈전대사 조건〉 –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2022년 7월 24일)'에

1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2 영성체를 하고

3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인 '노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래 내용 중 하나를 실천할 경우 모든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미사에 참여하기

②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을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 연로한 병자와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통상 조건(1~3)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이날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 성하의 말씀과 교구의 관련 여러 예식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고난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

주님, 저에게 장수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피신하는 이들이 언제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 주님, 저의 체념과 절망을 용서하시고
저의 기력이 쇠하여도 저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래를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희망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치시고 제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저를 주님의 온유함의 혁명을 이루는 장인으로 삼으시어
저의 손주들과 주님 안에서 쉴 곳을 찾는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지키게 하소서.

오, 주님,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외로움에서 구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끄소서. 아멘.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7월 5일 이순성 안드레아 신부(55세)
- 1950년 7월 7일 이여구 마티아 신부(53세)
- 1952년 7월 10일 정규량 레오 신부(69세)
- 1980년 7월 4일 김재문 미카엘 신부(26세)

*1950년에 선종하신 신부님들은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으로 한국전쟁 중 순교한 분입니다.

교구장알림

성경통독 7월 피정(사목국)

내용: 시편 / 지도: 조창수 신부
때, 곳: 7월6일(수)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
회비: 2만원 / 문의: 010-7586-5425 (문자로 문의)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2-2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 회비: 10만원
때: 8월10일~12월21일 매주(수) / 20주 과정
곳: 가톨릭회관(명동) / 신청기한: 7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월례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순례 접수 안내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7월5일 · 8월2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 하루일정 전국 성지순례 접수 안내
때: 7월16일(토), 7월17일(일), 7월26일(화)
곳: 김제 요촌성당, 최양업 신부 일행 난파 체류지
신청: 7월4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4만5천원(차량, 중식 제공)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7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7월4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7월16일 10시(묵주기도), 10시30분(유가족 미사)
곳: 명동대성당 옆 영성센터 경당(상설고해소 건물)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

관현악, 국악, 그레고리오 성가로 만나보는 교회음악 / 출연: 서울평단협 6개 회원단체
때: 7월4일(월) 오후 7시30분~9시
곳: 명동대성당(공연 전 선착순 무료입장)
문의: 02)777-2013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

제2차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념 사진 공모

제2차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념 사진 공모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할래요'
응모 자격: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자면 누구나
주제: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한 행복한 모습(조부모와 손자녀 모습이 꼭 담겨야 함) / 작품규격: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원본파일)
출품수: 1인 최대 10점이내 / 접수기간: 7월31일(일)까지
접수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isenior@hanmail.net) 접수
문의: 02)727-2386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https://isenior.catholic.or.kr) 참조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접수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2022'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청년 Hello 기도 2022	삶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월피정 7월5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청년 누구나 / 문의: 02)727-2031 고 크리스티나 수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7월4일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3층(명동)
7월11일		중서울 길음동성당
7월18일		동서울 광장동성당
7월25일		서서울 양천성당

2022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하반기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초 · 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 원서접수: 7월11일(월)~22일(금)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 · 4호선 서울역, 2 · 5호선 충정로역)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 요망
문의: 02)393-2213~5(http://www.casm.site) 성음악위원회

하반기	개강일정	9월 개강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학기운영	3학기 과정, 직장인을 위한 주중 저녁, 주말반 운영
	입시일정	원서접수 → 면접전형(실기) → 합격자발표 → 등록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 문의: 02)990-1004
때, 곳: 7월12일~15일·8월11일~14일(3박4일), 명상의 집(우이동) / 개인 피정(수시), 위탁 피정 별도 문의

청년들을 위한 개인 피정(상지 피정의 집)

1박2일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대상: 여성 / 문의: 010-8191-0377
2박3일	와서 빵을 먹어라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1박2일	7월21일~22일, 8월25일~26일
2박3일	9월29일~10월1일(광주교구), 7월14일~16일(안동마산)

예수 전교회 치유 대피정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8898-6770

치유대피정 미사	매월 첫째주(토) 13시	가톨릭회관 604호
기도회 미사	매주(토) 13시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주제: 링크, 다시 연결하기
선착순 접수 / 문의: 010-6608-3217 김종관 신부

중고등부	8월9일(화)~11일(목), 산청 성심원(경남)
일반부	8월13일(토)~15일(월), 까리따스 피정의 집(경기 양평)

삼성산 피정의 집 화요성령기도회 및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화요성령기도회	매주(화) 18시30분~22시
치유 대피정	7월9일(토) 12시30분~17시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7월9일(토)~10일(일), 8월14일(토)~15일(일)
3박4일	7월14일(목)~17일(금), 7월21일(목)~24일(금), 45세 이하 미혼-7월28일(목)~31일(일)
8박9일	8월4일(목)~12일(금), 9월19일(월)~27일(화)
40일	9월14일(수)~10월23일(일)

파티마의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와 미사
시간: 14시~16시 / 준비물: 묵주, 미사 준비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02)3142-4434 절두산 순교성지

7월13일(수)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유경촌 주교
8월13일(토)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정순택 대주교
9월13일(화)	절두산 순교성지	구요비 주교
10월13일(목)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염수정 추기경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횡성)

성경완독	7월8일(금)~16일(토), 8월12일(금)~20일(토)	문의: 010-3340-0201
효소단식	7월21일(목)~24일(일), 8월4일(목)~7일(일)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피정 (풍수원 옛공소길순례)	7월29일(금)~31일(일) / 회비: 1만원 선착순 30명 / 문의: 010-9715-1203	

신부와 함께하는 청년모임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 / 기도, 토론, 나눔, 친교
문의: 010-5597-8431 도미니코 수도회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7월1일~31일 / 문의: 010-8874-7970

평화의 모후 청년 쎌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7510-4820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젊은이 여름 쉼 피정
때: 8월13일(토)~15일(월) 2박3일 / 회비: 6만원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평창) /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5715-1702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노틀담 청년 교회문헌통독 모임
때: 7월19일~12월20일 매주(화) 20시(1시간)
곳: 노틀담교육관(북촌로54) / 대상: 39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3930-6730 노틀담수녀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청년 신자
때, 곳: 7월10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문의: 010-3817-0567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자연순례: 7월21일~23일, 7월30일~8월2일(우도), 8월6일~9일(우도), 8월12일~15일, 8월20일~22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때, 곳: 7월15일(금)~18일(월)·7월29일(금)~8월1일(월)·8월12일(금)~15일(월)·8월26일(금)~29일(월), 도미니코수도회 / 문의: 010-9916-5798 토마스모어 신부, 010-9363-7784 신글라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7월23일~25일·7월31일~8월2일·8월27일~29일, 여름특별일정 8월6일~9일·8월13일~16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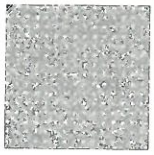
교육

수제 묵주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한국외방선교회 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 있는 분
때, 곳: 매월 첫째주(수) 15시~16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4시, 소성당 / 문의: 02)3673-2528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검정고시, 수능, 바리스타, 영상제작, 사진, 포토샵, 필라테스, 토익, 영어대화, 독서토론 등
자원봉사자: 검정고시, 수능 학습지도 가능하신 분
문의: 02)382-5652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문의: 02)727-2472



미국가톨릭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 단기 1년 또는 장기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2022년 국악성가 캠프 참가자 모집
대상: 성가대, 일반 신자 / 입금 선착순 200명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2279-0255
때, 곳: 8월26일~28일, 영성의집(양산)
회비: 25만원(버스비 5만원 별도)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곳: 초보자 화요일반 14시·금요일 오후반 14시·금요일 저녁반 20시, 삼동역 본회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수어(手語=수화) 교실 개강
곳: 프살 배움센터(성북구 종암동)-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부설(주최) / 문의: 02)941-1880(learning4@daum.net)

주간반	7월6일(수) 11시	저녁반	7월5일(화) 19시30분

제20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3주)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2인 1실 대학기숙사, LA투어와 디즈니랜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3주)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1인 1실 대학기숙사, EPL 손흥민 토트넘 투어, 파리 디즈니랜드, 서유럽투어)
사이판(4주)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명문대 선생님 수학수업과 에세이, 다양한 액티비티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하반기)
문의(접수): 010-9620-4820 마리아학교(회관 311호)

대면반	8월30일~2023년 2월25일 매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 회비: 16만원·14만원(5명 함께) 계좌: 우리 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온라인반	8월31일~2023년 2월25일 매주(수) 낮반 14시~16시·밤반 20시~22시, Zoom
젊은이	9월25일부터 매월 마지막주(일) 10시~16시 매월 1회(총 10회) / 중식 제공

예수회센터 현장 및 동영상 강좌(9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영신수련, 하느님 사랑의 뜻을 찾기 위한 여정	현장 강의: (월) 14시~16시 동영상 녹화 강의: 링크 발송	김형철 신부
삼위일체 하느님과 영적성장	현장 강의: (수) 10시~12시 동영상 녹화 강의: 링크 발송	이규성 신부
창조, 조상들, 탈출, 광야-모세의 책 네 권	현장 강의: (목) 10시~12시 동영상 녹화 강의: 링크 발송	주원준 박사
영의 식별 (Discernment of Spirits)	현장 강의: (목) 14시~16시 동영상 녹화 강의: 링크 발송	권오면 신부

모집

가톨릭합창단 2022년 신입단원 모집
지휘: 최호영 신부 / 대상: 20~30대 남녀 교우
오디션: 7월16일(토) 13시 /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공지 참조 / 010-5759-4861

가양동성당 반주자 모집
교중미사 반주자 구합니다 / 소정의 봉사료 지급
문의: 010-9920-1995 단장

로사리오 성가단원 모집(4부 혼성)
때, 곳: 매주(월) 18시30분, 매헌윤봉길기념관(양재)
지도: 이종철 신부 / 문의: 010-3702-0132 조종미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회원 모집 / 문의: 010-3361-1068
때: 매월 넷째주(수) / 대상: 만55세 이하 견진성사를 받은 자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7월6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7월 후원회 미사 / 문의: 051)782-0765
때, 곳: 7월7일(목) 11시(미사·안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종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7월4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7월9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노고산성지 월례미사
때: 매월 첫째주(목) 7월7일 오전 11시
곳: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성당
문의: 02)705-8161 서강대학교 교목처

겟세마니 첫 목요일 성시간·미사(말씀의 선교 수도회)
대상: '예수성심의 온전한 사랑' 말씀의 치유를 바라는 신자 / 문의: 02)312-7211 선교 사무실
때, 곳: 7월7일 19시~2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윤상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8월3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오기선 신부 32주기·황인국 몬시뇰 1주기 추모미사
추모미사: 7월30일(토) 오전 10시30분, 용인시 용인천주교묘지 김수환추기경기념경당(031-334-0807),
무료버스 예약접수: 010-8982-9819·02)2299-2296
명동대성당 8시 출발, 010-8936-2331·010-5202-5145 절두산성지 8시 출발
집전: 김정수 신부, 오웅진 신부 외 사제단

안내

돌아보며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 010-3173-2665

인천교구 범박동성당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모
참가 등록 마감: 7월15일(금) / 기타 일정 추후 공지
문의: 032)351-9911, 010-7566-2873

제23회 새천년복음화연구소 심포지엄
주제: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위한 교회의 역할
때, 곳: 7월16일(토) 14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2096-0412 새천년복음화연구소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나답게 살기 위한 필요한 자기인식 작업-수지에니어그램: 매월 셋째주(금)·(토) 오전 10시~오후 4시

'PEACE for CHILD' 전시연계 아트토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
접수: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
무료 / 문의: 02)3147-2403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2023년 도림동성당 혼인미사 접수
거룩한 혼인미사(실내·야외 선택가능)를 위한 아름다운 성전과 넓은 성모마당, 소형 기념미사 및 미니웨딩(10~20명 참석) / 문의: 02)833-9439
접수: 7월26일(화) 10시, 도림동성당 사무실 / 선착순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 운영시간 (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의 전화상담

전화 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대면상담	심리 및 가족갈등 / 문의: 010-6836-9360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 봉헌(명절·위령의날), 매월 1회 추모와 축복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문의: 010-9146-7654(www.dstcoun.net)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 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업무: 어린이여름신앙캠프 보조진행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문의: 031)840-0742 활동운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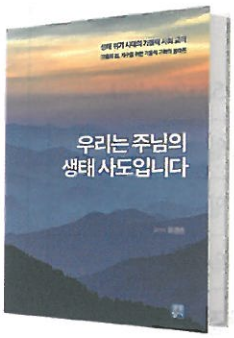
대치3(성모탄신)성당 미화원 모집(계약직)
대상: 신자로 성실하신 분 / 근무: 주25시간
업무: 성당 청소 및 제반사항 / 문의: 02)568-3656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방문·우편(우 06187,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90길 19(대치동)) 및 이메일(kc7hoon@naver.com) 접수

신정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대상: 신체 건강한 분 / 근무시간: (월) 휴무, 주 40시간
업무: 방호, 미화, 시설관리(방화 및 가스안전면허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 및 방문(우 08027,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46길 28 신정동성당 사무실) 접수 / 문의: 02)2601-0103
서류 전형 및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문정2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408-0179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신자로 회계 업무 및 PC(엑셀·한글)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타교구 신자는 주임신부님 추천서)
7월15일(금) 18시까지 사무실 방문 및 우편(우 05833,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7길 34 문정2동성당)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	010-2140-7414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마리아의 종 수녀회	7월10일(일)	서울 분원(돈암동)	010-6826-6882
성바오로딸수도회	7월8일(금) 18시~10일(일) 15시	사도의 모후집(여주)	010-2619-1610 박 비비아나 수녀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7월9일(토) 14시	본원(경기도 남양주시)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7월9일(토) 14시~10일(일) 13시 / 수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osb3@hanmail.net)
성심수녀회	7월16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19길 49	010-9284-0304 채현주 수녀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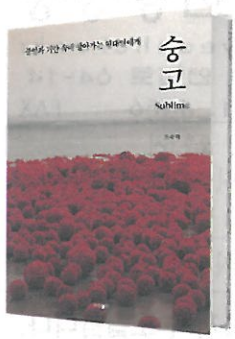


신간

우리는 주님의 생태 사도입니다

유경촌 지음
생활성서사 | 280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공동의 집' 지구에 사는 우리를 위협하는 생태 위기 시대에 '생태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행동해야 할 바를 알려 주는 책이다. 생태 위기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인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생태 위기 시대의 신앙인이란 누구인지를 신학적 뒷받침과 더불어 설득력 있게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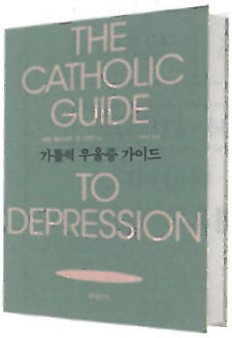


신간

숭고

조숙의 지음
파람북 | 224쪽 | 1만6천원
문의: 02)2038-2633

조각가 조숙의가 자신의 예술적 지향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예술론이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희생〉에서 주인공이 온 마음을 담아 바닷가에 죽은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것처럼, 저자가 흙을 빚어 온전한 생명이 깃들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이 책은 그런 숭고한 마음이 담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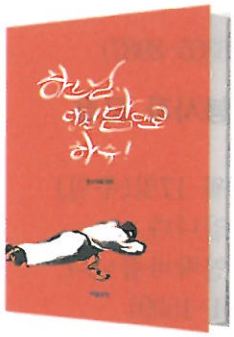


신간

가톨릭 우울증 가이드

에런 케리아티 외 1명 지음
분도출판사 | 344쪽 | 2만3천원
문의: 02)2266-3605

우울증이란 질병은 "'자신의 다른 측면을 발견하는 길'일 수 있으며, 하느님과의 새로운 만남일 수 있습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 책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 사이, 정신과 물질 사이에 본질적인 통일성이 있다는 가톨릭의 관점을 견지하며 두 가지 측면에서 우울증에 접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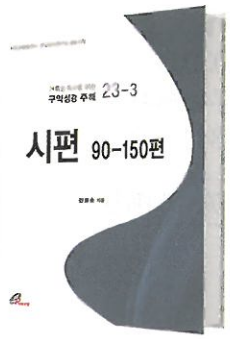


신간

하느님, 당신 맘대로 하슈!

한수아래 지음
기쁜소식 | 492쪽 | 2만원
문의: 02)762-1194

하느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게 아쉽고 부끄러워, 하느님께 죄송하고 그분의 자비를 더 절실히 구하게 된다는 노사제의 겸손한 신앙고백 글들을 엮어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신간

시편 90-150편 (거룩한 독서를 위한 구약성경 주해 23-3)

전봉순 지음
바오로딸 | 580쪽 | 2만9천원
문의: 02)944-0944

시편 90-150편의 주해서인 이 책은 단순하고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주면서 시편에 맛들이며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이끈다. 또한 각 시편을 시편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접 시편과의 관계와 교부들과 현대 학자들의 해설을 적절히 소개하고 있다.

cpbc가톨릭평화방송

제21회 cpbc 창작성가제

분야: 보컬, 창작곡, 보컬+창작곡 부문
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접수: 7월 1일~20일
문의: 02)2270-2304

찬양사도의 등용문이자 문화 복음화 축제가 새롭게 태어난다.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는 이들의 신앙 이야기와 가톨릭 성가의 풍요로움을 만날 수 있는 본격 오디션! 음악을 통해 주님을 찬미하고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한다.

제2236(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천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명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예비신자는 7월 10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6월 8일(수) 오후 8시~	교육관 304호
주일반	6월 12일(주일) 오전 9시~	

⊙ 유아세례 : 7월 3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여성구반장 회합

일시 : 7월 10일(주일) 12시 / 소성전

⊙ 성물방 봉사자 모집

문의 : 효주아녜스 대표 (010-6355-8987)

⊙ 반디주일학교 여름캠프 봉사자 모집

캠프 장소 : 산천가든 유원지
캠프 기간 : 7월 16일(토)~7월 17일(주일)
※ 1박 2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 사무엘 교감 (010-5091-1509)

⊙ 청년 이레밴드 단원 모집

모집파트 : 보컬(남/여), 건반, 드럼 등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열린미사 : 매월 마지막주 주일 오후 6시
문의 : 스테파노 단장 (010-2829-3856)
※ 열린미사는 밴드찬양을 통해 봉헌하는 청년미사입니다.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청년레지오(샛별 Pr.) 단원 모집

대상 :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청년
회합(기도) :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문의 : 안나 단장 (010-9524-8988)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6. 26)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7	817 (39.0%)	770 (36.7%)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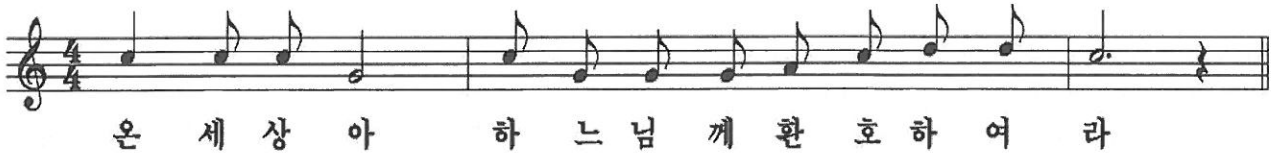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이지만 ····· 일십만원
누 계 ····· 36,240,600원

⊙ 감사헌금 (6월 20일~26일)

한인순 ····· 일십만원
심준섭 ····· 일백만원
이행우 ····· 일십만원
박신우 ····· 오만원
박수현 ····· 이십만원
이영자 ····· 일십만원
신옥분 ····· 삼만원
조정자 ····· 이십만원
이지만 ·····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13주일)

교무금 ····· 8,039,000원
주일헌금 ····· 4,748,500원
교황주일 2차헌금 ····· 1,844,500원

입당	48	봉헌	219, 512, 215	성체	165, 502, 175	파견	437